

2023. 9. 24

제114권 39호

주일 1·2부 예배

오전7:30(1부),	오전9:00(2부)	인도자:신동영목사(1부), 우경창목사(2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송영		찬양대
찬송	*서서 14장	다같이
교독	 84	“
고백의기도		“
사죄의선언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앞아서 485장	“
기도		I부 김완수 장로
		II부 길건성 장로
봉헌	 508장	봉헌위원
봉헌송	*서서 213장(4절)	다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교회소식	*앞아서	담임목사
	I부-시편 23편	살롬찬양대
찬양	II부-사랑의 주 하나님	호산나찬양대
찬송	 637장	다같이
성경	 히브리서11:13~16(신약P.365)	담임목사
설교	 【추석 명절에 할 증언】	담임목사
성도의교제	*서서 55장	다같이
축도	 송영	담임목사

주일 3부 예배

오전10:30

인도자:권훈목사

찬양	*서서 송축해 내 영혼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
찬송	*앞아서 485장		“
기도			김봉수장로
봉헌	 508장		봉헌위원
봉헌송	*서서 213장(4절)		다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교회소식	*앞아서		담임목사
찬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글로리아찬양대
찬송	 637장		다같이
성경봉독	 히브리서11:13~16(신약P.365)		담임목사
설교			담임목사

【추석 명절에 할 증언】

성도의교제	*서서		다같이
파송과위탁			다같이

인도자 :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회 중 :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찬양		주가 일하시네		다같이
축도				담임목사

†내주기도 : I부 - 권오규 장로 / II부 - 서광수 장로 / III부 - 권용일 장로
청년예배 - 김명린 청년 / 찬양 - 조지용 집사 / 수요 - 권춘섭 권사

†이달의 강단 꽃장식 : 표현창 조지용 박명희 김민정 김윤에 이규숙 김광수 김영순 권정희

* 10월 예배위원 -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안	내	봉 헌
I	신두교 김대식 권태섭 김미애 김영표	권순역 강순희 이희정 이원영	차량안내
II	장병익 이숙향 유임숙 고남순 이정필 임현오	양광석 손대호 이예순 장애영 권인환 박순덕	사봉권 오창렬
III	배승룡 임은주 박명자 허은자 정기숙 노향숙	박상철 박수미 권민영 이예진 임영희 신은정	이재택 정영수
IV	임병태 김준광 박정옥 김경숙 이 순 김지민	김희순 김효정	정위동 조대웅
		조지용 김현정 황순철 김외정 김미영	권중익

주일4부예배 (오후12:00)

경배와 찬양 - 소리엘찬양단 / 목회기도·봉헌기도 - 담임목사
설교 - 히브리서11:13~16(신약P.365) / 추석 명절에 할 증언 / 담임목사

주일5부예배-청년예배 (오후1:45) 인도자 : 정준환목사

기도 - 권기원청년
설교 - 사도행전17:16~31(신약P.217) / 아덴에서 예수를 외치다 / 정준환목사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3:00) 인도자 : 조경화목사

경배와 찬양 - 새롭찬양단 / 찬송 - 432, 344, 54 / 기도 - 임병태집사 / 찬양 - 시온찬양대
설교 - 사도행전27:9~26(신약P.235) / 풍랑 속에서 담대한 자 / 김용식목사

수요오전예배 (오전10:30)

경배와 찬양 - 예음찬양단 / 은혜나눔 - 동영상
설교 - 창세기12:5~7(구약P.15) / 3.세겜-가나안에서 첫 제단을 쌓은 땅 / 담임목사

수요저녁예배 (오후7:30)

경배와 찬양 - 르비딤찬양단 / 기도 - 허은자권사 / 은혜나눔 - 조보람집사 / 찬양 - 다비다찬양대
설교 - 열왕기하10:15~17(구약P.580) / 71.여호나답-종교개혁의 동역자 / 담임목사

목 상 노트

“ 추석 명절에 할 증언 ” (히브리서 11:13~16)

- _____이라는 증언 (13)
목상을 위한 질문) 아브라함의 육신적 고국은 갈대아 우르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는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증언했다. 어느 곳에서나 외국인이라고 인정할 때 본향을 사모하며 돌아갈 수 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더 좋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으며, 결국 그곳에 입성할 수 있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외국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 _____라는 증언 (13)
목상을 위한 질문) 자기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묵으면서 꽤 먼 길을 가거나 이곳저곳을 방랑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한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이 세상의 삶은 단지 나그네라고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다. 영적으로 나그네가 가야할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로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